

시민 안전복지 노력

군산시, 영조물배상 공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서비스 제공

군산시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에게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안전복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의 수혜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시는 지난 9월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하였으며 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

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산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적극 알리며, 시민의 관심도 같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접수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대비 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대상 혜택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현장 일원인 (주)영신 공장과 에디스모터스(주) 군산공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전기차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달’

군산시의회 경건위, 군산형 일자리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현장 일원인 (주)영신 공장과 에디스모터스(주) 군산공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경건 위원은 현장방문 자리에서 "올해 군산형 일자리 고용목표가 700여 명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고용 인원이 350여 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됐다"며 "전기차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군산형 일자리의 주력 기업 명신이 연말까지 3,000대의 다니고 밴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다니고 밴 5,000대와 중국 바이톤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경영난이 어려워져 파산할 수 있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은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산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상생,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 군산형 일자리의 첫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건위는 지난 14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동물복지 확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새만금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등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고사리손에 담긴 코로나 극복 응원메시지 ‘감동의 물결’

군산 흥남동, 초교 3개소 · 주민 참여 의료진 · 소상공인 이웃에 전해

군산시 흥남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소상공인 이웃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흥남동은 여름철 주민센터의 일원으로 주민센터 앞에 설치돼 있는 그린터널에 코로나19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응원하며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의 응원메시지 계층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교 3개교(군산남초, 군산중문초, 전주교대군산부설초)학생 800여명과 흥남동 주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고사리손으로 써 내려간 응원메시지에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 선생님들 힘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어요!', '공주의 이름으로 명한다! 코로나1는 사려져라~' 등 다양한 내용의



군산시 흥남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소상공인 이웃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진난만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진정권 흥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한글자 한

글자 적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정석 교수 초청 강연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6강좌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정석 교수를 초청해 '천천히 재생,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더 나아가 도시는 무엇이고, 그 도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바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강연을 맡은 정석 교수는 서울대

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보전, 걷고 싶은 도시 설계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 권위 있는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현재는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아동 놀 권리 확보' 놀이문화공간 책자 발간

익산시는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놀이문화공간을 발굴해 책자로 발간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코로나19로 바깥 놀이를 하지 못했던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지역 내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체험공간을 스토리텔링 방식 책자로 소개했다.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책은 실내 놀이터, 어린이·가족공원, 유아숲체험원생태테마 관광지, 액티비티 놀이 시설까지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지역

내 21개의 놀이문화공간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주수 이용시간 등 기본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놀이문화공간을 200% 활용방법을 제시한다.

시는 서동공원 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유천생태습지공원 내 하늘언덕과 미로공원,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 등 시민들이 잘 아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을 찾아줘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에 집중했다.



시는 아동의 놀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내 놀이문화공간에 스토리를 입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아 아동과 부모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책을 제작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